

between Art &
Business

VOL. 385 JULY 2010 www.monthlydesign.co.kr

DESIGN



영국 헤더워스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가 디자인한 조양 샵 건물 시투타리(Sitotarie) / © Steve Speller

New Media Design

특집 뉴미디어, 디자이너의 새로운 개척지
디자인 주도기업 벤텍 퍼니처 디자이너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의 산증인, 이종환
아카이브 보조 아닌 주역으로 거듭난 IT 주변 제품 리포트 우리가 매일 먹는 디자인, 빵과 커피
부록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포스터 - 영화 포스터



봄처럼 따뜻한 꽃피는 봄이 오면 사무실 리뉴얼

스튜디오베이스가 그래픽 디자인 회사 꽃피는 봄이 오면의 사무실을 리뉴얼했다. 차분한 크림색을 주조로 밝고 세련된 공간으로 사무실을 완성했다. 한쪽 벽면은 투명한 유리로 마감해 마주한 공간이 보이고, 복도를 향한 벽면은 밖에서 들어온 사각 빛을 담았다. 개방된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인 책장은 사각 프레임을 겹치고 쌓아 만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스튜디오베이스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실내 디자인 스튜디오로 광고 프로덕션 알파빌 44, 류승범의 와인바 핑퐁, 카페 믹스 앤 베이크가 대표작이다.

www.studiovase.com



목재와 메탈을 탈피한 공공시설물 카림 라시드 벤치

카림 라시드의 유기적인 형태, 과감한 색상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예견의 기술력이 만나 카림 라시드 벤치를 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제품을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목재와 메탈로 이루어진 공공시설물과 달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림 라시드 벤치는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디자인했다.

www.yekun.co.kr 글: 이지혜 인턴 기자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의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 전시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 교수의 최근 작품을 모은 전시 <최병훈 가구 2010>이 현재 파리의 갤러리 다운타운(Galerie Downtown)에서 열리고 있다. 파리의 유명 디자인 가구 갤러리인 다운타운과 최병훈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는데, 1996년 첫 개인 전시를 연 이래 이번이 여섯 번째 전시다. 미니멀하게 디자인한 아트 퍼니처 신작들은 돌과 나무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는 그의 디자인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한가운데에 옷걸이를 입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대형 다이닝 테이블 등 전통적인 제작 기법을 이용한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테이블 외에도 의자, 장식용 오브제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는 7월 3일까지 계속된다. www.galeriedowntown.com

글: 정재훈 프랑스 통신원

